

## 사회적 공헌위해 作品활동 많이 해야



□ 형님 권유로 건축전공 택해 적성에도 맞는것 같아 계속해. -

□ **金** 새학기도 시작되어서 썩 바쁘실텐데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사님 요즘 근황은 어떠신지요.

□ **金正** 잊지 않고 이렇게 찾아주니까 늙어도 외롭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늙으니까 건강이 문제인데, 4,5년전에는 인생을 다 산 줄로 알았어요. 그러다가 다시 그만해져서... 젊어서는 건강에 자신이 있었지요. 운동도 잘하는 편이어서 유도가 3단이었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건강이 괜찮아졌어요.

□ **金** 모습이 좋아지셨습니다. 다행입니다. 근 40 여년간 건축계에 몸을 담으시고 관(官)에도 계셨고, 시공 회사, 설계사무소도 직접 경영 하시다가 지금은 후진양성을 위해 학교에 계신데 건축가로서 지난날에 대한 회고담 같은 것을 들려주시죠. 김박사님 자신에 관한 것과 사회적 측면에서...

□ **金正** 제가 건축을 한것은 형님 친구가운데 건축을 하신분이 계셨는데 그게 좋으셨던지 형님이 나한테 권해서 하기 시작했어요. 나도 또 적성에 맞는것 같기도 해서... 그런것이 그러저럭 40여년이 되는데 맨처음에는 10여년있다가 6.25전후에 시공회사를 한 2년, 그리고 설계사무소를 10여년, 그리고는 학교에 20여년 있었으니까 결국 학교에서 가장 오래 있는 셈이지요. 요즘 생각해 보면 한군데 계속있었으면 좋았을 텐데하는 생각도 들지만, 여러곳에 있었으니까 고루고루 경험을 할 수도 있었다는 느낌도 듭니다.

그중에서도 연세대에 제일 오래 있었고 한양공대, 서울공대, 고려대 등에도 관계하고 있었기 때문에 후진들을 많이 양성할 수 있었다는게 제게는 큰 보람이라고 여겨지는군요. 특히 연세대에서는 친여명 가까운 후진들을 내보

□ 出生地 / 平南大同郡 □ 本籍 / 서울 鍾別區 平洞 28-1 □ 學歷 / 平壤公立高等普通學校 / 京城高等工業學校 / 美國미네소타大學院修了 / 延世大大學院工學博士 □ 主要經歷 / 中央廳에서 局長歷任(48년) / 三正土建 社長 / 綜合建築所長 / 서울工大待遇助教授 / 大韓建築學會會長 / 延大教授 / 延大工學部長 / 產業大學院長 □ 賞罰 / 서울시文化賞 / 建築學會作品賞 / 國會議事堂設計 및 監理로 大統領표창 □ 著書 / 教會建築 計劃 / 建築計劃 各論(共著) / 한국의 종교建築에關한 연구 □ 主要作品 / 明洞성모병원 / 종로YMCA / 장춘체육관 / 연대학생회관 · 중앙 도서관 / 여의도 국회의사당 등 다수

### ☞ 對談 / 金奉勳(본지편집위원)

#### □ 빈틈없는 만남의 준비

열을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에서 부터 아홉까지를 차근 차근하게 다져나가야 한다. 그리고도 마지막 열을 한번 더 준비해야 가능하다.

건축가 金正秀 博士.

그는 짧은 동안의 만남을 위해 하나부터 열사이에서 어느 하나라도 빠짐없이 챙기기에 열중한다. 오히려 그에게는 만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남을 더욱 소중하게 하려는 준비과정을 더욱 사랑하는 듯 했다.

그것은 그의 직업이 그러하듯이 한체의 귀한 건축물을 빚어 놓는 작업과도 흡사했다. 큰 기둥, 하얗은 못(釘) 하나라도 소중스레 다루는 등직한 건축가의 의견함이 거기 있었다.

이런 일면은 그의 회갑기념 대담에서 그의 제자가 쓴 글에도 표현되어 있다. "그의 사상은 기능을 위주로 하는 건축표현"이라고 - 허식없고, 충실을 기하고, 그래서 누구에게나 믿음울 주는 모습으로...

비록, 가을 어느날 오후 대학캠퍼스 깊숙한 연구실에서의 만남이었지만 - 작은 만남을 위해 김박사는 적지 않은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었다. 조금도 서두르지 않았다. 아니, 끝까지 그는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냈으니까 유일한 나의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학교에 있는 사람은 겸직 금지로 해서 작품활동을 제대로 못했다는 점이 큰 아쉬움입니다. 건축가가 본연의 일을 마음껏 못했으니깐요. 作品 활동을 소신껏 했으면 사회에 좀더 공헌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건축계 40여년, “내소신껏 해본 作品없어 아쉬워…”

□金 ね, 건축가로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길은 좋은 작품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문화해적가치로 남을 수 있는 건축물을 남기는 길일텐데 그것을 소신껏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 않다는 면에서 같은 건축을 하는 사람으로서 아쉬운 일이라고 공감됩니다.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건축문화적인 측면에서 건축계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金正 건축이 인간사회에서 어떤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는 저보다는 건축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첫째로 건축물은 한나라의 문화의 척도라는 것을 말할 것도 없고, 또 의식주의 하나로 미술적인 아름다움을 갖춘 생활필수품이라고 하겠죠. 특히 건축은 건축이 표현할 수 있는 존엄성이라든가 소박 간결 친근감 등등 감정을 표현해서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건축을 잘함으로써 국민 생활을 아름다운 환경속에서 영위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건축가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것이 건축가가 보는 문화적인 측면이라고 하겠죠.

□金 김박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건축가의 사명이 무거운 것을 깨닫겠는데…, 상당히 힘들군요. 그러면 앞으로 한국 건축이 나갈길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죠.

□金正 한국건축이라고 해서 세계건축과 동떨어져서 나갈 수도 없는 것이겠고, 세계적인 흐름에 주류를 타야 되겠죠. 따라서 최근의 경향이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는 있으나 훗날 오늘날의 건축양식을 볼때는 분명히 과학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고 평가할 것입니다. 때문에 과학적인 면을 표현해야 할줄 알고 특히 한국 건축은 한국적인 전통을 살린 건축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국건축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석굴암이라든가 불국사 또는 근세에 와서는 경복궁의 경회루라든가 하는 건축물이 그것을 대변해 주고 있는데 그러던것이 일제시대를 통해서 그런전통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중단되어 있었죠. 그러다가 독립이 되고 그후 우리

것을 차츰 찾는 입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속의 흐름에서 우리만의 전통, 특색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공이나 재료, 설비면에서 다른 나라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공법, 지반안정공법이라든지 기초말뚝공법등 비록 우리가 개발하지 못했다고 해도 새로운 공법은 속히 기술을 도입해서 우리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공법은 벌써 오래전에 생겼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용되고 있지 않아요.

또 요즘은 컴퓨터가 디자인 계획에서 부터 견적, 구조 계산, 시공, 제도까지도 해 내는데 이런면에서도 우리나라가 빨리눈을 떠서 첨단을 가야한다는 겁니다.

□세계건축 조류에 따라 고유의 전통 살려나가는 작업이 한국건축의 나갈 길.

□金 바로 그런것이 후진들에게 바라고 싶은 말씀인것으로 알겠습니다. 한데 요즘 대학출신들이 시공회사로 나가잖아요. 앞으로는 설계사무소에도 진출하도록 유도가 안되겠습니까?

□金正 양쪽을 비교해서 당장 월급이라도 많이 주는 시공회사쪽으로 많이들 가는데, 저도 학생들에게 한평생의 원대한 계획을 세워야하며, 그 계획에 의해 방향을 정하라고 일러주고 있어요. 최근에는 당장 좀 어려워도 앞날을 내다보고 설계사무소로 가는 사람이 차츰 늘어나는것 같아요.

□金 좋은 현상이군요. 간혹 시공회사에 있다가 나이가 들어서 설계를 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딱 하다고 할까요…, 앞으로는 그런것이 지양되었으면 합니다.

김박사님 그동안 하신 작품중에서 대표작을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金正 지금까지 내 소신껏 마음대로 해본 作品이 없는 것이 가장 아쉬운 점인데, 그 원인은 건축주가 고집을 부려 못한 것도 있고 또 중요한 건물은 자문위원들이 많아 이사람 저사람 말이 많아 다수결로 결정을 한다든지 해서 소신껏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해서 그동안 자랑할 것은 못되지만 작품이라고 하면 우선 여러분들과 함께 한것이지만 國會議事堂, 그리고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연대 중앙 도서관, 성모병원, 장춘체육관 등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죽기전에 두세계 作品만이라도 내 소신껏, 마음대로 해봤으면 하는게 소원입니다.

□金 박사님은 또 종교건축에 조예가 깊으신걸로 알고 있는데 그 면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 장래위해 원대한 포부를 갖고 당장의 어려움 참고나가야

□ 종교건축자료 수집하다 보니 자연히 손대, 교회, 불교, 유교 건축 등 史的관심 커져.

□ 金正 종교건축은 제가 처음부터 하려고 해서 한것은 아닙니다. 동기라면 연세대가 종교계통인 관계로 손을 대게 되었다고 하겠고 또 과거 설계자료중에서 종교 건축에 관한 자료가 전혀 없었어요. 일본인들도 가르쳐주지 않았고 그래서 후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우선 교회건축자료를 수집해서 대충만들기 시작했죠. 계속해서 만들다가 보니까 불교건축도 연구하게 되더군요. 그래서 불교하면 인도, 티베트, 중국 그리고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전승되어 갔잖아요. 그래서 차츰 그 방면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유교건축도 살펴보고 천도교등도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취미도 생기고... 그게 동기가 되어서 요즘은 동양건축도 史的인 것을 탐구하려고 마음 쓴것은 아닌데 조금씩 취미를 붙여 간다고 생각이 드는군요.

□ 金 요즘 여가는 어떻게 보내시는지요...

□ 金正 먼저 원로건축가라고 이렇게 찾아오니 나도 이젠 다 늙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나역시 그런 감이 듭니다. 이젠 늙었으니, 젊은 사람들이 이어 받아야 되겠고, 또 젊은 사람들이 잘하고 있어요 수적으로도 많고-, 나 같은 사람은 잘한다기 보다는 다만 초창기에 했다는것 뿐이지, 요즘 젊은사람들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활약상이 대단하고 해외에 나가서도 잘하고 있지 않아요?

이제 남은 시간동안은 학교에 오래 있었으니까 책을 쓰

거나 또는 건축관계 연구나 계속해볼까 합니다. 다소나마 젊은이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일이라면 힘을 다할 작정이구요.

□ 건축가의 사회적공헌은 좋은 作品 통해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 남기는 것.

□ 金 연전에 편찮으셨다가 완전히 회복하셔서 좋아지신 것 같은데,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 金正 건강관리라고 특별히 하는건 없어요. 다행히 집사람이 의사가기 때문에 늘 신경을 써 주어서 요즘은 아주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방안에서 체조정도 하는것이 고작이죠.

□ 金 앞으로 학교에 4,5년 더 계시게 되겠지요?

□ 金正 아마 3년 남짓 정도입니다.

□ 金 네, 그 후엔 뭐 특별한 계획같은 것 있으신지...

□ 金正 앞서 말씀드린 저서나 연구를 계속해야죠. 또 취미라면 잔디나 화초가꾸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환경속에서 지냈으면 하는데... 물도 맑고 공기도 좋은 곳에서 화초도 가꾸고 새도 길러 봤으면 좋겠어요. 집안에서는 너무 적적하지 않겠느냐고 해서 생각중입니다만-.

□ 金 네, 부디 건강하셔서 자라나는 후진들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시간 할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金正 나보다 더 바쁜사람들이 찾아워서 오히려 더고 맵소이다. <\*>

国家技術資格建築分野

검정시험 일정공고

- 기술검정공단 -

- 제7회 기술계자격중 건축기사2급 필기시험일정 / 10월 11일 / 서울을 비롯한 전국 도청소재지에서 실시 합격자발표 / 11월 2일에정
- 제8회 기술계자격중 건축기사1급 원서접수기간 / 9월 28일 ~ 10월 2일 / 필기시험일정 / 11월 8일 / 합격자발표 / 11월 30일에정 /